

SERMON 13 NOVEMBER 2016
Isaiah 65: 17-25
Luke 21: 5-19

이번 주는 설교를 적기에 이상한 한 주였습니다. 두 개 나누어 지는 주입니다: 9 월 11 일 전과 9 월 11 일 후입니다. 저는 미국을 관찰하기 위해서 세계의 눈들이 멈춘 것 같은 수요일 날 설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나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훨씬 더 위태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에 관한 깊은 불안을 모두 의식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이 기이한 것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분노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캠페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마치 최악의 사람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최상의 사람이 노력함으로 승인 되어야 할 중요 할 때 에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어떤 어두움을 유발 시키기 때문입니다. 꽤 치명적인 것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또는 이 판도라의 뚜껑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깊은 불안함을 가집니다. 세계적으로 충격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열을 초래하는 많은 호언장담들 후에 무엇이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까요?

이번 주 초에 저는 파라마타에 있는 Leigh Memorial 교회에서 오늘 교회 성구집에 관해서 그룹과 함께 토론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주위는 꽤 놀랍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홀은 외딴섬과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탑들 나무와 채널로 된 시냇가로 둘러 쌓일 큰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50 미터 떨어진 곳에는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 포함된 13 층 빌딩이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하늘들과 새로운 땅,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 뒤편에는 불도저는 바깥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대였을 때 그 주위는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의 도시와 지역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파라마타에서,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얼마 동안 평화의 장소였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이사야서 마지막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얼마나 멋진 이미지입니까! 이것이 모든 살아 있는 것이 조화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온 이사야의 예언적인 발언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잘못된 것을 되찾을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화와 번영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것을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것처럼 묵살합니다.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을 상상할 수 없다면, 중동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 관해서 궁금해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휴식하고 어떤 것을 행복하고 좋게 유지 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상상의 땅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세계에 대해서 넓히기 위해서 분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미국을 강화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알리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차이점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장벽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의 제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 오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기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인 누가 복음으로 가 봅시다. 누가 복음에서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이 만든 재난의 전조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기함 없이 최고의 시간에 감당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의 현실은 불가피 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복음서를 적을 때,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 받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은 아마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회심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사울의 발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인 야고보는 목이 잘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오와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모래 안으로 숨기는 타조와 같은 유혹을 받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성경 본문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 서서 이것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론, 밖에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의 소음 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린필드 교회의 안전함과 평안함에 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핍박과 증오와 폭력에 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럼 중동으로 돌아 가 봅시다. 우리 모두는 아마 전쟁으로 폭발된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동네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극단주의자 법칙 아래에서 인내 해야만 하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폭행은 믿음의 차별, 성(남성, 여성) 또는 그 어떤 것의 차별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무엇과 같은지, 공산주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 라도,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현실적인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을 불안감과 좌절감 그리고 다른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위협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서를 다시 봅시다. 그것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앞의 누가복음 언급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12:7)”. 누가복음 12 장은 확신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에 관해서, 복음서에는 항상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숫자까지 아마 세는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코린킵스에 의해 적혀진 찬송가의 가사를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에서는 잃은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영원히 잃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서는 세대를 걸쳐서 희망을 인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사람들을 희망으로 끌어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탱시켜 줍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 연관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에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수 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을 가속화 시키며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지탱해 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점에 아주 적절하게 보이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이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1967 년 크리스마스 설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서 너무 많은 증오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증오는 감당하기에 너무 큰 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가장 힘이 드는 상대자에 대항해서 일어서 야만 하고
그리고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가하는 상대자의 능력을
고통을 인내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대항할 것 입니다. 우리는
상대자의 육체적 압박을 우리의 영혼의 압박으로 대할 것 입니다.
상대자인 당신들이 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대자인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의 능력에 의해서 패배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를 얻을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우리는 상대자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상대자를 이길 것 이고 우리의 승리는 두 배의 승리가 될 것 입니다.”

마틴루터킹은 믿음으로 서있다는 것의 댓가를 알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그와 같이한 사람들은, 옳은 것과 사랑과 정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앉기 위해서 학대를 감당하고 아마 커피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민권을 위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강하면서도 연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큰 주제인 진리와 지혜 그리고 정직과 관계,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화에 관해서 가장 깊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그것은 우리의 (인종)갈라들을 뚫대에 못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다소 극적인 면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도 또한 기억할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초대 교회 제자들과

회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3 세기때 그들은 항상 취약한 위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또한 위협으로 간주 되는 것이 어떤 것 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서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복음을 그는 가르침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공동체 일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잘못 될 때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상기 시켜 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의 편지를 우리의 성경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한 후에,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인, 여러분에게 선행을 할 때 절대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일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누가복음 13:20 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교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 여자가 이스트를 가지고 60 파운드의 밀가루와 합쳐서 그것이 반죽이 될 때까지 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아주 많은 두려움을 야기 시키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폭력의 메시지와 증오와 분열,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작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반죽에 있는 이스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친절함과 희망으로 상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부르는지 세상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심각한 학교 총살 사건 후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도울 사람을 찾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경찰들, 간호사 그리고 도처에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자로 또는 반죽의 이스트로 우리 자신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의 원천인 우리 자신을 계속 상기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기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의 세상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워도 말입니다. 우리영혼의 보호 안에 희망은 공급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우리의 연결성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기 위해 어떤 희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위한 평화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이 악 보다 강하고, 사랑이 증오 보다 강하며, 빛은 어둠 보다 강하고 그리고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